궁극적인 실재의 4분면

| **켄 윌버** | **정창영** 옮김 |

궁극적인 실재는 개인과 집단, 내면과 외면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시에 발견된다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 기사 '상태states와 단계stages'에 이어서)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말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어떤 발달 라인의 최상위 수준 또는 상태를 가리킬 때, 또는 발달 라인 그 자체 곧 '영성 발달 라인'을 가리킬 때, 또는 의식의 다양한 변성 상태를 일컬을 때 곧 수준과 라인과 상태와 관련해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타입과 4분면과 관련해서는 어떨까?

내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타입**types'은 영성의 중요한 양상 또는 내용을 규정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어떤 타입의 특성 곧 사랑, 친절, 평정, 지혜 등과 같은 의미로 쓴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발달**development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는 앞에서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과 관심 또는 동정심에 대해서 말할 때, 관심이 이기적인 관심에서 보편적인 관심, 통합적인 관심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타입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서 정의를 내린 수준 그리고/또는 라인에 대한 이야기로 곧바로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영성은 사랑을 포함하며, 영적이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민족중심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세계중심적인 사랑, 온 우주중심적인 사랑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랑만을 진정으로 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스적인 사랑 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영적이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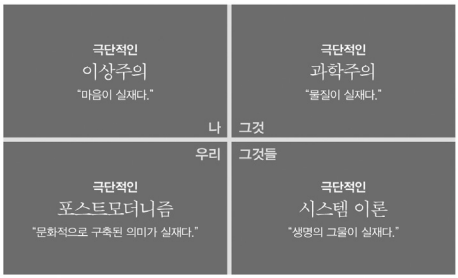


그림 1. 4분면 절대론

많은 이론가들이 자신의 견해가 '진짜 진정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임을 설명하려고 할 때 4분면의 어느 하나를 이용한다(그림 1).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4분면이 궁극적인 실재인가? 여러분의 신이 어느 수준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4분면이** 여러분의 신인가를 묻는 것이다.

물질이 근본적인 실재라고 보는가? 영과 의식이 근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보는가? 또는 종교와 같은 모든 '상부구조superstructures'를 경제적인 현실의 '토대'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또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사회적인 구조물일 뿐이라고 보는가?

만약 여러분이 물질을 궁극적인 실재라고 생각한다면(곧 우–상 4분면만이 유일한 실재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영적인 체험이나 믿음이 뇌의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긴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신은 어른인 여러분에게는 상상의 존재일 뿐이고, 모든 영적인 믿음은 물질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영과 의식(좌–상 4분면)을 궁극적인 실재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을 실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믿을 것이다. 모든 물질적인 형태를 환상으로 여기고, 물질적인 형태를 실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무지와 죄와 마야(환영)와 삼사라(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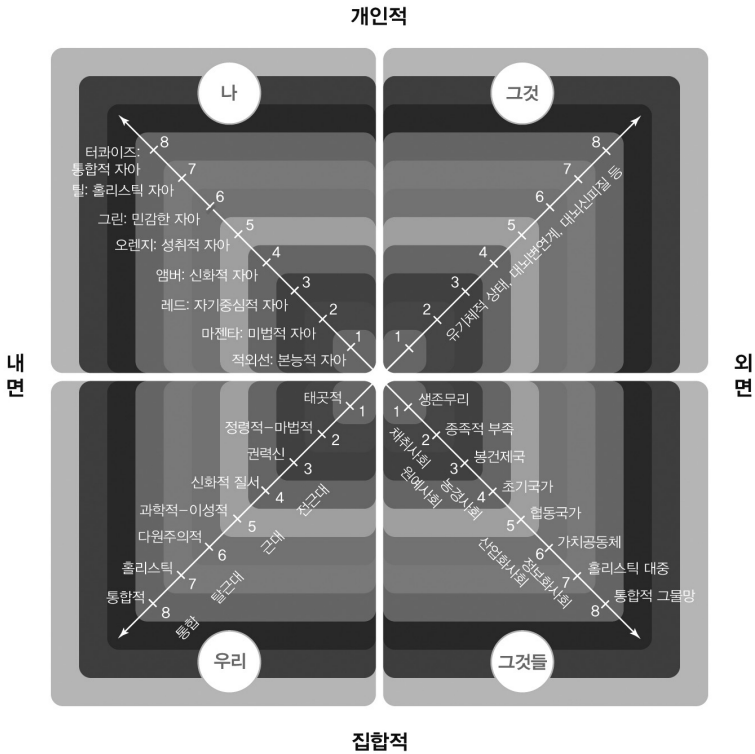


그림 2. AQAL

여러분이 만약 외적인 시스템(우-하 4분면) 차원의 실재에 대한 견해가 궁극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믿음이 모두 구조적인 기능일 뿐이라고 볼 것이다. 사회 시스템적인 실체, 기술-경제의 토대, 사회역학적인 구조로 짜인 그물 등 3인칭 복수 '그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될 뿐, 결코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좌-하 4분면만을 유일한 실재라고 생각한다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신과 영에 대한 생각은 제외하고)을 포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회적인 구조물이 될 것이다. '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들'도 아닌 전능한 '우리'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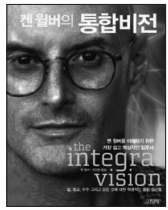
문자적으로 모든 실재를 창조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4분면 절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는가? 고백하건대, 나에게는 분명히 그렇다. AQAL에서는 모든 4분면이 동일하게 근본적이다. 어떤 4분면이 다른 4분면보다 더 실제적이거나 근본적이지 않다. 모든 4분면은 4중으로 함께 성장하고 진화한다. 어떤 4분면에서 궁극적인 실재가 발견된다면 다른 4분면에서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창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밝게 드러낸다.(끝)

• 이 내용은 저작권자와 김영사의 허락을 받아 《켄 윌버의 통합비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자 | **켄 윌버**Ken Wilber (1949~) |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평가받는 미국 태생의 현대 사상가. 의학과 생화학을 전공했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아 심리학 · 종교 · 영성 등 동서양 사상에 심취, 23세에 쓴 《의식의 스펙트럼》(1977)을 통해 인간의식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2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하면서 심리학과 철학, 인류학, 동서양 신비사상,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총망라하여 인간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특유의 '통합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과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두뇌집단이자 교육과 영성 등 통합이론과 수행법을 연구하는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설립하여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여기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실행 · 공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식의 스펙트럼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모든 것의 역사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무경계No Boundary》, 《아이 투 아이Eye to Eye》,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 《켄 윌버의 ILP Integral Life Practice》, 《켄 윌버의 일기One Tast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Grace and Grit》 등이 있다.

역자 | **정창영** |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30년 넘게 경전 연구와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 어스트랄러지Astrology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탁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천문天文 정보를 쉬운 일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옮기고 엮은 책으로는 《티벳 사자의 서》, 《바가바드 기타》, 《요가 수트라》, 《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결혼》, 《탈무드》, 《있는 그대로》, 《라마 크리슈나》,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내면의 불꽃》, 《열자》, 《창세기의 비밀》,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별들에게 물어봐》, 《나의 출생차트를 해석한다》, 《예언자》, 《도덕경》, 《선심초심》 등이 있다.



켄 윌버의 통합비전

삶, 종교,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혁명적인 통합 접근법

켄 윌버 지음 | **정창영** 옮김 | 김영사 | 값 13,500원

"켄 윌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쉽고 핵심적인 입문서!"

광대한 의식의 세계를 하나의 지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깨달은 사람도 심리치료가 필요할까? 굉장한 의식적 체험이 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린아이와 달인의 무심함은 어떻게 다를까? 성공한 사람과 영적 지도자들이 어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 몸 · 마음 · 영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의미는? 영성이란 무엇이며, 우리 시대에 어떤 실질적 가치를 지니는가?

'플라톤 이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문화 창조자', '의식 연구의 아인슈타인'으로 칭송받는 통합심리학의 대가 켄 윌버는 고대의 샤먼과 현자들로부터 현대의 최첨단 인지과학까지,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 관해 알려진 모든 모델과 시스템 속에서 5가지 공통 핵심 요소(AQAL)를 뽑아내어, 이를 건강 · 비즈니스 · 생태학 · 심리학 · 사회학 · 영성 등 다양한 방면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사례와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몸 · 마음 · 그림자 · 영靈을 위한 다양한 '1분 모듈'까지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도 간단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표지부터 새롭게 바뀐 이번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더했다.

- 정확성 : 번역, 용어, 인명, 그래프 속 캡션의 재검토와 수정
- 명확성 : 의미 분별을 위한 적절한 영어 · 한자 병기, 주요 내용 강조
- 편의성 : 세부 목차, 본문 속 도표까지 총정리한 색인 추가, 휴대하며 읽기 쉬운 얇고 감각적인 신형 양장본, 합리적인 가격

켄 윌버의 저서 중 유일하게 가벼운 분량 속에 100여 개의 올 컬러 이미지들이 수놓아진 《켄 윌버의 통합비전》은 수많은 책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핵심 개념들을 알기 쉽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끝까지 독파한 켄 윌버의 책, 더 나아가 넓고 깊게 그의 사상을 공부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